



제목	Byzantium between the Ottomans and the Latins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Cambridge University Press
발행일	2009. 4. 20.
저자	Nevra Necipoglu
출판도시	New York
페이지수	374
ISBN 또는 ISSN	978-0521877381

내용 요약

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사에서 비잔티움이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겪었고,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과 서유럽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으며, 그 결과 정치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해 놓았다. 비잔티움은 로마제국의 연장이다.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두 아들이 제국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동서로 분열되었다.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족에게 멸망하고 동로마제국은 이스탄불에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함으로써 비잔틴제국의 서막을 열고 1,000여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한다. 하지만 1017년 이후 셀주크튀르크 민족이, 그 이후에는 오스만튀르크 민족이 차례로 비잔티움을 위협하고, 1453년 마침내 비잔틴제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한다.

이 책에서는 비잔틴제국의 테살로니케와 콘스탄티노플을 주된 공간적인 배경으로 삼고 모리아 지역을 함께 다룬다. 그리고 이 책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귀족, 상인, 도시 대중, 농민, 종교계 및 수도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여건을 상세하게 조사한다. 또한 개인, 가족, 사회 집단의 정치적·종교적 배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비잔틴 초반의 전통보다 후기 비잔틴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한다. 비잔틴제국과 유럽 서구, 오스만 제국의 다양한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이 책에서는 이 시대의 엘리트 대부분이 서구와 내지 서양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잔틴제국이 오스만 제국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.